

왕실의궤 반환요청서 작성 및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공동 합의서 체결,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남북불교도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2007년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 불교교류 방안을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기도 하였다. 대한불교 천태종과 진각종에서도 여러 차례 방북하여 공동법회 개최, 불교복지시설 건립 등 남북 불교교류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당국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북한 단군유적 답사, 을사늑약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 개천절 공동행사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꾸준한 접촉을 가졌다. 단군문화유적답사 대표단은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평양 단군릉 등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민족자주역사대회와 개천절 공동행사는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다.

## 6. 지방자치단체 교류

사회·문화·종교·체육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자체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은 1998년 강원도에서 최초로 설치한 이후 13개단체(광역 9, 기초 4)에서 748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6년에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다. 2008년도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는 11월 7일 개최되었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지자체간 대북교류사업 추진사례 발표, 지자체간 남북교류 정보교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사업 추진실적

시도별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 백만원)
서울특별시	평양조선중앙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800
인천광역시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 지원	1,414
울산광역시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결핵치료약품 지원	226
경기도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352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795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635
강원도	안변언어사료공장 완공,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 등	709
충북	봉산군 천덕리 협동농장 옥수수 단지	190
충청북도 제천시청	제천시-북고성군 남북협력사업 확대 지원	100
전남	평양 발효 콩 빵공장 건립 지원	860
경남	평양 과수원 조성, 수해피해 가정집 복구자재 지원	1,000
경북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100
제주	평양 흑돼지 사육협력사업 지원	200

## 제6절 기타 남북교류협력

### 1.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남북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합의서가 발효되지 못하다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 합의서」를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 25일 제1항차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 이래 2008년 3월 31일까지 총 26항차에 걸쳐 단섬유 등 섬유 원자재 39개 품목(2,583만 달러 상당), 고무혼합물 등 신발 원자재 48개 품목(4,293만 달러 상당), Soap Chip 등 비누 원자재 7개 품목(1,124만 달러 상당) 등 총 8,000만 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2007년도 상환분인 240만 달러(8,000만 달러의 3%)를 2차례에 걸쳐(2007.12.24, 2008.1.4) 아연괴 약 1,005톤으로 상환하였다.

우리측은 4차례(1차: 2007.8.7~11, 2차: 2007.10.23~27, 3차:

2007.12.3~8, 4차: 2008.1.21~26)의 기술지원과 현장점검을 위해 북한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우리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협의하였으며, 북한 경공업 전문가의 견문확대를 위해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남북전문가 해외공동방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실시한 북한 단천지역 3개 광산(검덕 연·아연 광산, 대흥 및 룡량 마그네사이트 광산) 현지 공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5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산개발 투자는 경제성이 있으나 철도, 항만,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농업 협력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기존의 일회성 대북지원에서 벗어나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민간 전문단체를 통해 시범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통일농수산물사업단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사)통일농수산물사업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금강산 지역의 삼일포·금천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영농기반 강화사업과 기술교류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금강산지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공동영농사업 대상지역을 개성

지역의 송도리협동농장으로 확대하였다.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은 2005년에 삼일포협동농장과 인근 협동농장 600ha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2006년에는 310ha 규모의 금천리협동농장으로 확대되었고, 3개년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기존 사업지에서 충분한 생산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하에 거점 지역인 420ha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협동농장의 협력기반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삼일포협동농장 시범농장 105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금강산 금천리협동농장 고구마 수확

한편,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은 2007년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300ha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2008년에는 506ha로 확대되었다. 2년간 영농기반 강화와 기술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벼의 경우 ha당 최고 4.8~5.2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금강산지역(4톤/ha)과 최근 우리 강원도지역의 평균(4.5~4.9톤/ha)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동영농사업의 성과 중 하나는 기술을 매개로 한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술교류 과정에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농업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공동영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켰다.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벼 수확